

간행물등록번호

11-1550000-000330-01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기록화 조사 보고서



E00639831



문화재청

전주 중앙동 구 박다옥 기록화 조사보고서

조사기관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역사연구실

발행처 |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동 139 정부대전청사

Homepage : <http://www.cha.go.kr>

인쇄처 | 동아원색(02)461-2271

발행일 | 2006년 10월

행정 간행물 등록번호 | 11-1550000-000330-01

I S B N | 89-8124-645-9 93610

©2006 문화재청

目 次

■ 원색화보	6
I. 기록화사업 개요	27
1. 문화재현황	27
2. 실측조사개요	28
II. 연혁	35
1. 전주의 근대도시화 과정	35
2. 건립배경 및 변천 과정	37
3. 중요기록	39
III. 건축특성	43
1. 배치 및 주변현황	43
2. 평면구성	45
3. 입면구성	48
4. 건축구조	53
IV. 종합고찰	61
1. 역사적 고찰	61
2. 건축특성	61
3. 향후 연구과제	62
4. 보존·수리 및 활용방안	62
V. 실측도면	67
■ 흑백화보	93
■ 참고문헌	117

박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 주거지역과 상가는 성곽 철거와 함께 성내로 진출하여 중앙동 일대 즉 다이쇼오마치(大正町)에 당시 전주 최대의 변화한 일본인 상가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박다옥 신축 이전에도 이미 이 대지는 일본인 상가가 성업하고 있었다.

건물의 정확한 신축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주시 완산구의 건축물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자가 1929년인 것으로 보아 1920년대 말에 신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이 1910년대에 신축되었다는 일부 증언⁵⁾도 있으나 이것은 1910년대에 이미 이곳에 일본인 상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의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신축연대는 대략 1920년대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물의 벽체는 콘크리트 블록을 철근으로 보강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콘크리트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일이고, 일반적인 건축물까지 콘크리트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은 1920년대 후반 이후이기 때문이다.



[그림 9] 1930년대 구 박다옥 전경

구 박다옥은 일본인 가네우찌 토시요시(金内利吉)⁶⁾에 의해 우동집으로 건립되었다. 대지 면적은 76평, 건평은 60평이었다. 이 건물은 당시 전주에 들어선 최초의 대형 일식집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이 건물은 당시 호텔·대중탕과 함께 성업했던 '하카다(博多)' 계열의 식당이었다. 일제 강점기 중앙동에는 전북도청과 군청, 우체국 등과 함께 각종 금융기관, 요릿집, 술집, 시계점, 양복점, 양품점, 가구점 등의 일본인 상가가 들어서 있었다. 약 10여년 정도 식당으로 운영되다가 1940년 이 건물의 소유주가 남선수력전기주식회사로 바뀌면서 전기회사로 사용되었다. 정면 중앙 상부 박공면의 번개 모양 장식은 이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입면에서 부분적인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3년 후인 1943년 조선전기주식회사⁷⁾로 소유주가 바뀌었다.

해방 이후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한전사장을 지낸 박영준이 인수하였고 이후 1966년 조성일, 1970년 이용구(당시 대흥정판사 사장), 1972년 삼풍산업 주식회사, 1974년 한국신탁은행, 1978년 서울신탁은행, 1978년 황용남 등으로 소유주가 몇 차례 바뀌면서 1층을 임대 상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벽을 철거하고 넓은 유리창과 셔터 박스 등을 설치하였다. 건립 당시 마루바닥이었던 2층과 3층 바닥은 1970년대에 콘크리트 슬래브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5년

5) 태인건설 이완우 사장 인터뷰.

6) 建築主 金内利吉, 상량문.

7) 완산 새마을 금고 중앙지점 유장춘 지점장 인터뷰